근대 일본의 불교계와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1．메이지(明治) 초기 일본 불교계의 상황

일본의 불교 종파들은 에도(江戸) 시대에는 막부에 의한 본말제도(本末制度)의 강화로 자유로운 포교에 제약을 받았었고, 寺請制度(檀家制度)의 추진으로 인해 포교활동에 대한 활력을 잃어 갔다. 더구나 막부 말기로부터 메이지(明治)에 걸쳐 폐불훼석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각 번국(藩)의 폐불책은 사원의 파기・폐사, 승려의 환속, 불교행사의 금지 등에 이르렀고 몰수한 사원 영지를 군사비에 충당하고 범종을 녹여 병기를 만들고 석불을 부수어 하천제방으로 쓰는 예도 보였다」(文化庁編 『明治以降宗教制度百年史』, 原書房, 1983년, pp.151~152). 이러한 상황은 메이지 1년의「神仏判然令」에 의해 한층 더 심해져서 불교계의 타격은 컸다. 예를 들어「코후쿠지(興福寺)의 경우, 승려는 모두 카스가 타이샤(春日大社)의 신관이 되었고 당탑과 가람은 남았지만 諸堂은 다 파괴되고 5층탑은 매물로 나오」는 형국이었다. (太田保世 『日本의 屈折点——메이지 유신의 가혹한 폐불훼석의 수수께끼』, 고마書房, 2007년, p.9). 다만 이「신불판연령」은 본래는 신사에서의 불교적 요소의 불식을 노렸던 것으로 결코 불교탄압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호적법의 공포와 장례의식의 자유화, 승려의 教導職에의 임용 등이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서구 각국의 내습과 더불어 明治政府가 추진한 극단적인 서구화정책으로 전통적인 불교사상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게 되어, 불교계는 침체일로에 놓였다.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선교사 추방령(1587) 이래로 에도 말기까지도 기독교 금지정책이 취해졌다. 케이오우(慶応) 4年(메이지 원년, 1868) 3월「5개조의 게시판(五榜의 高札)」이 내걸렸다. 그 세 번째 게시에「기독교(邪宗門)의 엄금」이 명시되었으며 메이지 신정부도 이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어서 메이지 6년(1873)에는 이 게시판(高札)을 내려야만 했고,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기독교가 널리 전도되는 속에, 구태의연한 불교계는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는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불교학자가 학식이 없이 명예만을 추구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일반 승려는 대개 목탁을 울려서 가람을 지키고 사자(死者)들을 위한 임종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경전 읽기만으로 제 입에 풀칠하기에서 당우(堂宇)의 수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비를 충당하려고 한다.……이 지경에 이르러 궁리 끝에 단가(檀家)의 비위를 맞추어 단 한 푼이라도 수입을 늘리고자만 노력하게 되어서 승려의 식견과 품격은 경전의 값과 함께 날로 급격이 하락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仏教改革私見 (석존 탄생법회에 참석하여 얼마간의 소감을 털어놓는다)」, 『甫水論集』, 『井上円了選集』제 25권, 학교법인 동양대학, p.138)

이러한 상황에서 엔료는「종래 우리나라 종교는 6백년 전 카마쿠라(鎌倉) 시대에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 출현하여 한때 크게 활기를 띠었지만, 그 후 아시카가(足利) 및 도쿠가와(徳川) 치세 중에는 오직 외관을 장식할 뿐, 내부의 정신은 거의 사멸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同前, p.143)고

단정하고「불교계의 작금의 광경은 마치 엄동설한의 시기처럼 도처가 황량한 상황으로, 그 옛날 백화난만(百花爛漫)의 기세는 옛 꿈으로, 다시 볼 수 없을 것과도 같다」(同前, p.137)고 개탄할 정도였다.

그러한 메이지 초기에 소년시절을 보낸 엔료는, 원래 사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이것을 진리가 아니라 믿고서 비방배척하길, 조금도 일반인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仏教活論序論』, 『井上円了選集』 제3권, p.336)는 상황이었다. 엔료는 불교에 대한 자신의 소년시절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나는 원래 불가에서 태어나 불문에서 자라서, 유신 이전부터 오로지 불교 교육만을 받았지만, 내심 불교가 진리가 아닌 것이라 의심하였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염주를 손으로 들고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은 일신의 치욕이라 생각해서 늘 어서 빨리 절집을 떠나 세상에 나가길 갈망해 마지않았는데 우연히 타이세이(大政) 유신 때 종교상의 일대 변동이 일어나, 폐불회석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승복을 벗고 바깥 세상에서 학문을 구했다.」(同前)

2. 엔료의 철학과 불교

하지만 엔료는 이윽고 동경대학에서 서양철학을 배워, 헤겔 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그 입장에서 불교를 재검토하여, 불교의 뛰어난 점을 새삼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미 철학계 내부에서 진리의 明月을 발견한 후, 다른 구래의 종교들을 다시 살펴보니 예수교가 진리가 아님은 이제 분명히 하고, 유교가 진리가 아닌 것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 오로지 불교에 이르러서야 그 가르침이 철리에 매우 합치함을 보았다. 나는 여기서 다시 불전을 읽고, 더욱더 그 가르침이 진리임을 알아서 손뼉을 치고 갈채하며 말하길, '어찌 알았겠는가? 서구에서 수천 년간 실로 구하여 얻은 진리가 동양에서는 일찍이 3천년 전의 태곳적에 갖추고 있었음을. …… 이것은 실로 메이지(明治) 18년의 일이었다. 이것을 내 불교 개량(改良)의 원년으로 한다.'」(同前, p.337)

그렇다면 엔료는 서양철학의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일까? 엔료는 독일철학이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깊어지는 양상을 묘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헤겔은 상대(相対)의 밖에 절대(絶対)를 세우지 않고, 상대의 본체가 곧 절대라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의 학설은, 상대와 절대는 둘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결합하여 존재하고, 절대의 범위 속에 상대가 있는 까닭을 밝혀, 상대 속에 있으면서 능히 절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절대의 전체를 이상이라 이름짓고 그 속에 함유하고 있는 물심(物心) 두 세계를 개발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상의 진화라고 한다. …… 독일철학은 여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성했다고 할 수 있다.」(『哲学要領』(前編), 『井上円了選集』 제1권, pp.144~145)

이처럼 이른바 상대즉절대・절대즉상대의 사상에서 독일철학의 최고봉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과 불교는 어떻게 관련하는 것일까? 엔료의 다음 설명은 철학과 불교의 대응관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승 유식의 삼라의 제법이 유식소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양철학의 유심론과 유사한다. 제8식, 즉 알라야식은 칸트의 자각심 혹은 피히테의 절대주관과 유사한다. 다음으로 반야가 제법공상을 논하는 것은 서양철학 중에서 물심(物心)의 둘이 없다고 하는 허무학파와 유사한다. 다음으로 천태의 진여연기는 서양철학의 논리학파, 즉 이상학파(理想学派)와 유사한다. 천태에서 내세우는 '万法是真如, 真如是万法'이라는 것은 헤겔이 '現象是無象, 無象是現象'이라고 논하는 것과 같다. 기신론이 말하는 일심으로부터 이문이 갈리는 연유는 셸링의 절대로부터 상대가 갈리는 논과 같다. 그것의 소위 진여는 스피노자의 본질, 셸링의 절대, 헤겔의 이상과 유사한다.」(同前, p.104)

이처럼 엔료는 서양철학 최고의 사상이 천태의 진여연기설이나 화엄의 법계연기설과 동등함을 충분히 이해하여, 불교가 철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상을 가진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한편 엔료의 철학과 불교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拙稿「井上円了의 철학에 대해」(『国際井上円了研究』제1호, 国際井上円了学会, 2013년 3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엔료의 불교부흥운동

엔료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돌연 불교 옹호에 노력한다. 먼저 기독교의 허망성을 논하는 한편 불교가 사상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을 논했다. 『真理金針』이나 『仏教活論』등이 그 논진이다. 이들 서책을 통해「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가 결코 서양철학이나 종교에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았고, 불교도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보물창고를 알아차려 활기를 띠게 된」(히라노 이마오(平野威馬雄) 『伝円了』, 草風社, 1974, pp.101~102)것이었다.

또한 엔료는 교육활동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불교 승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도 했다. 엔료는 대학시절부터 학교 설립의 뜻을 품고 있던 것 같고, 그 후 동경대 후배인 타나하시 이치로(棚橋一郎, 철학관에서는 윤리학을 담당)에게, 철학관에서는 철학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승려들이 지옥극락이라는 것에 구애받고 참된 승려학을 안 하고 있다. 그들에게 철학사상을 준다면 반드시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井上円了의 교육이념』, 학교법인 동양대학, p.24). 철학교육을 통해서 민중의 지력을 개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철학교육을 승려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침체되던 불교계를 활성화시키려고 바랬던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엔료는 승려를 교육자로 만들고자 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학문교육의 분야는 일단 불교계가 장악했지만 메이지에 들어 승려들이 교육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불교 쇠퇴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불교가가 교육자를 겸할 수 있게 되면 불교 세력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가의 학식을 중등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철학관의 급무로 간주했다(同前, p.76). 이것은 메이지 22년 11월 13일에 열린, 린쇼인(麟祥院)에서 호우라이쵸(蓬莱町)로의 철학관 교사의 이전식에서의 연설 중에 첫 번째 해외시찰에 의거한 철학관 개량의 네 항목의 하나로「제4 : 세상의 종교가, 교육자를 일변시켜 언행일치, 명실상응한 사람이 되게 함」을 내세운 것이(同前, p.56)나, 메이지 36년 9월에 두 번째 세계시찰 후이자 철학관 사건 후의 교육방침을 세운「널리 동포 여러분에게 고한다」(『東洋철학』 10집 제9호, pp.115~120)등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메이지 19년(1886) 무렵부터 외국과의 사이에서「외국인의 국내거주・동산부동산 등의 권리를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할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엔료는 메이지 22년의 해외시찰에서 귀국한 후에는, 본가인 절이 있는 고향으로 한번은 귀성하라고 재촉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불교가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같은 해 헌법의 발포로 기독교의 전도는 자유로워졌다, 지샤쿄쿠(社寺局)은 폐지되고, 사원 묘지의 철거, 사원 경지의 몰수, 본산 관장의 폐지, 주지 승려 명의의 폐지는 멀지 않았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주거(内地雑居) 허가로 기독교는 큰 세력을 얻고 불교는 폐멸에 이를 것이다. 선교사는 국회에 출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승려는 출석하지 못 한다'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해, 불교의 부흥에 온 정신을 쏟겠다는 내용을 절절히 쓰고 있다.

「지금 일본 전국의 불등(仏灯)은 꺼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 전체를 위해 생사의 결심을 해야 할 위기 존망의 시기입니다. 이 헌법국회의 시기는 万世의 国基를 세울 때로, 지금 불교가 남의 밑에 서게 되면 만세에도 만회할 가망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위급한 시기입니다. 구사일상의 날입니다. 하나의 절, 하나의 주지직에 급급할 때가 아니며 한 지방, 한 부락을 위해 분주할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불교 전체의 존폐에 대해 다년간 고심한 바가 있습니다. 작금 구사일생의 위급한 상황에서 분주하는 것은 필사의 기세로, 적어도 내년 국회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불교 수호를 위한 방책을 세우고자 홀로 밤낮으로 마음쓰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 개회 후가 되면 불교세력 만회의 방책은 없어

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모레 시바(芝)・세이쇼지(青松寺)에서 각 종교 관장 대리를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상순에는 총관장 회의를 열어 재차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메이지 22년 8월 28일자, 井上円悟에게 보낸 서간. 『東洋大学百年史』 資料編 Ⅰ·上, 학교법인 동양대학, 1887, pp.50~51)

그는 이어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決意를 밝히고, 狂人라는 비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엔료는 필사의 마음으로 불교계의 복권에 매진하게 된다. 그 간의 일에 대해 히라노 이마오(平野威馬雄)는「불교공인운동의 리더가 되어 진두에 서게 된 엔료는 그 해 가을에는 쿄토의 각 종파 본산을 방문하였으며, 각 본산에서는 단결하여 그 실현에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즉「불교를 공인하라」는 건의서를 내무성에 제출하려는 회의였다. 귀경 후, 다시 도쿄의 각 종파 사원들을 돌며 양해를 얻어 각종파연합을 결성했다. 그래서 아타고시타(愛宕下) 세이쇼지(青松寺)에서 각파의 관장들과 회합하여 드디어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무소는 아사쿠사(浅草) 덴뽀인(伝法院)에 두고 천태종의 무라타 자쿠준(村田寂順), 일련종(日蓮宗) 혼세이지(本成寺)파의 후루야 닛신(古谷日新)이 위원이 되고, 청원서는 오우치 세이란(大内青巒)이 집필하여 각 종파로부터 인장을 모아 제출 준비를 마쳤다」고 적고 있다.(히라노 이마오 『伝円了』, 草風社, 1974, pp.100~101과 전게 서간 참조.)

그러나 이 때 내무성으로부터, 청원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아, 결국 청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각 종파는 이후에도 정부고관들에게 신교(信教)의 자유의 의미, 불교가 공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불교 각 종파연합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도 보인다.「빠른 것으로는 23년 6월, 츠키지 혼간지(築地本願寺) 별원에서 각 종의 관장회의가 열려, 종파간 협회를 설치하고 사회의 조화, 빈민의 구조, 교육의 보급, 식산흥업(殖産興業)의 장려, 각 종파들의 강요(綱要)의 편찬・번역 등이 협의되었다. 그때 불교자선회(仏教慈善会)도 설치되었다. 종파간 협회는 그 때부터 매년 개최되어 종파연합운동의 기둥이 되어 갔다」(『明治以降宗教制度百年史』, p.162). 이처럼 엔료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 빈사상태에 있던 불교계는 회생하여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일본인의 해외발전과 더불어 조선, 중국 대륙, 하와이, 북미에 포교의 끈을 넓히고자 하는 신 노선을 이끌어 냈던」는 것이기도 했다(『伝円了』, pp.100-101). 이와 같이 엔료의 지도에 의해 불교계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신 불교운동 등도 일어나게 된다. 엔료 자신은 절을 버렸다. 하지만 하나의 사원을 버림으로써 수만의 사원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4. 엔료의 불교개혁에 대한 시점

엔료는 또한 종파간의 협동을 바랄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 대해서, 각 종파가 모두 근본에서부터 각각의 교의를 다시 세우는 한편 염세교라는 평판을 뒤집고 현실 사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개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엔료에게는「메이지 이전의 우리나라는 쇄항양이(鎖港攘夷)의 시대였고, 지금은 만국이 서로 통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외국과 함께 거주하고 밖으로는 열국과 경쟁해야하는 시대이다. 불과 30년이라는 역사에서, 국가의 형세가 위에서와 같이 크게 변천을 겪고 있음에도 오로지 종교만이 구태를 유지하는 것에 그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仏教改革私見」, p.143)라는 생각이 있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방침으로서, 승복 개량이나 육식 대체, 종파간 합동이나 해외 선교,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에 대한 준비, 국교청원 등을 내세우기도 하였는데, 그 모두에 대해「그 시야의 편협함은 비관계자들이 크게 비웃는 대상이 된다……」(同前, pp.135-136)라고도 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의 자유로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3, 세간과 출세간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폐는 세상의 무상함을 설하여 사

람을 되도록 염세적이게 만드는 것에 있다. …… 주로 사후세계(冥土)에 관해서만 설하기 때문에 세간은 불교를 보고 염세교라고 하고, 세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교는 하나의 큰 장해물로서, 부국강병, 식산흥업에는 큰 방해물이 된다. …… 결국 이것이, 종래의 불교가가 출세간적 출리해탈이라는 한 길만을 설하고, 세간도를 설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세간도를 바깥으로 하고 출세간도를 안으로 하여 양자를 모두 근본으로 삼아 불교의 교법이 두루 퍼지도록 힘써야 한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주거에 대한 교육가, 종교가 및 실업가의 각오」, 『甫水論集』, 『井上円了選集』 제25권, p.100)이처럼 엔료는 불교 그 자체를 세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만 하고, 그것이 근본문제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메이지 25년 1월, 도쿄와 쿄토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일본 불교청년회가 설립되어, 석가탄신회나 여름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강습회에는 유명 불교학자들이 강사로서 초대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 각지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불교청년회가 설립되게 된다. 이중 어느 한 시기의 강습회에 엔료가 초대를 받은 듯 하며, 그때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원래 대성(大聖)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단 마야부인의 태내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사라쌍수 사이에서 원적을 보일 때까지는 물론, 그 남겨진 가르침이 오늘에 전하여 4억, 5억의 생령(生靈)이 기쁘게 귀의하고 추모하길 그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주의 하나의 큰 정신이 발동해서 현현하여 이 대각자를 탄생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마저 든다. 따라서 나는 석가불의 본체는 결코 그 옛날 3천년 전의 싯다르타 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먼 과거로부터 온 각자, 무시이래의 부처임을 믿는다. .....(석존의 일생) ..... 이 어찌 우주의 대 세력이 활동하여 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석가모니를 우러러, 대성이라고 칭하고 대각자라고 부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찬탄하는 것은 오로지 이 대정신의 발동 때문이다. 아마도 그 문을 나가서 생사를 보고선, 두루 일체중생을 구도하고자 하는 둘도 없는 대원(大願)과 무한한 대비(大悲)와의 일심(一心)이 속에서 울컥 드러나서 억누르려 해도 억눌리지 않고,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즉 그 일심은 자기의 일심이 아니라 무아의 일심이다. 상대의 일심이 아니라 절대의 일심이다. 유한한 일심이 아니라 무한한 일심이다. 바꿔 말하면, 무시이래로, 이 대우주가 품어온 지고지대한 정신이 홀연히 석가모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온 것이라 믿는다.」(「仏教改革私見」, pp.139~140)

이처럼 석존의 근본에 둘도 없는 대원과 무한한 대비, 지고지대한 정신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작금의 불교는 바로 그것을 구현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환언하면 구래의 염세적 종풍을 일변시켜 진취적인 종풍을 발휘한다는 의미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일변시켜 정신적인 종교를 환기한다는 의미이다. 선종은 선종인 채로 좋고 정토종은 정토정인 대로 좋다. 천태, 진언은 천태, 진언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진종, 일련종 역시 진종, 일련종인 대로 그것을 전해도 좋다. 단지 각 종파가 그 체내에 함유하는 정신을 밖으로 개발하여, 일대 활기를 진작하는 걸로 충분하다.」(同前, p.143)

더구나 엔료는 정토진종 사원 출신이었지만, 사후 정토왕생을 바라기만 하는 불교보다, 이 지상 사회의 개혁을 기도하고자 하는 일련종을 높이 평가할 정도였다. 「…… 오늘 세간 일반에서 불교를 보고 염세교라고 하고 사후교(死後教)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주로 일련종의 여러 스승에게 그 종의교리(宗意教理)를 널리 세간에 개시하기를 바란다.」(「종래의 불교에 대해 일련종 스승들에게 바란다」, 『甫水論集』, 『井上円了選集』 제25권, p.302)라고 했다. 더구나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련종의 장점은 현세를 근본으로 하고 세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 ……

앞으로의 불교는 세간문(世間門)을 앞에 두고 출세간문(出世間門)을 뒤로 하고, 속제문(俗諦門)을 바깥으로 진제문(真諦門)을 안으로 해야 된다. 일련종이라는 것은 이미 염세교가 아니라 세간교(世間教)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층 더 국제적인 경쟁에 참가하여 어디까지나 국가원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종파들도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번성하려면 반드시 이 방침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려는 세간의 폐물 취급을 받고, 사원은 무용하다는 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일련종에게 향후 불교 개량의 선구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그 방침은 세간적, 경쟁적, 유위적, 진취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다, 승려는 묘지기다, 사원은 장의소다라는 망평을 설파해야 한다.」(同前, p.303)

또한 일련종에 대해서는,「앞으로 일련종과 타 종파 사이는 개항통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류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장점을 취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종파의 통일과 교리의 원만을 기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배타적인 성격의 극복을 호소하고 있다.

결론

엔료의 입장은, 시대의 제약도 있어서 확실히 국가주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불교계의 반응으로서, 메이지 초기에는 반기독교와 호법(排耶護法)이 주된 것이었지만 메이지 20년대가 되면 그것이 반기독교와 호국을 호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권리문제의 교섭 등이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엔료의 호국사상의 배경에는 그러한 전체적인 사회의 사정도 있었다. 물론 지금은 그 정당성도 음미해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엔료가 당시에 역설한 ‘불교는 현실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불교는 세간적, 경쟁적, 유위적, 진취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지금의 일본 불교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엔료의 사상이 당시의 불교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조사할 생각이다

현재 불교 제종파는, 사회 속에서 그 나름의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그 연원은 이노우에 엔료가 당시의 각 종파 관장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불교계의 복권 문제에 맞서도록 했던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엔료는 지금의 일본 불교계에 있어 중요한 존재였고, 불교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교철학을 깊이 구명하여, 그 입장에서 현실 사회의 개혁에 참여하는 불교를 구상하였던 엔료의 뜻을 계승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